

'방석집 논문심사' 의혹터진 2일... 김인철, 尹에 "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장관 제청한 한덕수도 타격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잘못" 후임에 정철영·최진석 물망

'방석집 논문 심사' 등 논란에 휩싸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정부 내각 후보자 낙마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준 윤석열 당선인에게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이 터진 직후인 2일 밤 윤 당선인 측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인 1999년 이른바 '방석집'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한 정황이 있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이성만 씨는 출마 직전인 지난 3월 '비교하지 마라, 하나뿐인 삶'이란 자서전을 냈다. 이 씨는 김 후보자의 첫 제자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방석집에서의 논문심사'라는 부분에서 "나는 최종 논문심사를 광화문에 있는 한식집에서 했다.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며 "자리마다 두툼한 고급스런 방석이 깔려 있어 그런 별칭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적었다.

이 씨에 의하면 '방석집'은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자 승낙을 거쳐 장소로 낙점됐다. 이 씨는 "마담은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 특별준비라는 것이 조용한 방과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았는데 심사 당일 주인공마담의 정성이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한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뉴스스

고 적었다. 또 "논문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을 일인양 기뻐하며 자리를 옮긴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줬다"며 "워낙 재미있게 치렀던 뒤풀이였는지라 지금도 한국외대에선 회자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 부인과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한 시기(2012~2015년)와 한미교육문화재단 감사를 맡은 시기(2014~2018년)가 자녀들 장학금 선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두고 '벨프허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총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시절 법인가드를 '조개기 결제'했다는 의혹, 성폭력 교수를 옹호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져 국민 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일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후임으로 그

와 함께 검증대상에 올랐던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우선 검토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 때부터 정책자문단에 합류해 교육 공약 마련에 핵심 역할을 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 사퇴 불뚱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로도 튀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가 사퇴했다. 최초로 임명제 청권을 행사했다고 직접 사인한 문서를 들고 자랑하셨는데 소감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상세한 검증에 현실적 제약이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강 의원은 "그 정도가 다냐"며 "김 후보자 같은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냐. 후보자로서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 맞냐"고 재차 물어세웠다.

우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뉴스드립

송영길 "尹, 벌써부터 '건방기'... '네가 건방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벌써부터 '건방기'가 보인다"고 했다.

송 후보는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한 행태라든지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쩍벌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건방기'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후보는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균형을 잡아주실 것"이라며 자신을 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dkq**** 대통령한테 건방기. 쌍스럽게 말투가.

yoon**** 그러는 네가 건방떠는 거지.

alom**** 건방기는 너가 보인다.

의혹 봇물 정호영, 청문회 문턱 넘을수 있을까

'병역 특혜' 의혹 아들·김연장 고액 고문료 등 청문회 '지뢰밭' '자진사퇴론' 거론에 "도덕적·윤리적 적대라도 부끄럼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3일 윤석열정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과상공세를 이어갔다. 자녀 특혜 등의 의혹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나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진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연장 법률사무소 재직 당시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논란 등을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사퇴하라는 것을 아느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잇따른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도덕·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국민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며 사퇴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거짓 없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여부는 함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의 MRI(자기공명영상) 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이 후보자 직장인 경북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병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자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일반에 공개·유포될 우려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 후보자는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개인신상 보호를 전제로 인사청문위원들에게 MRI 자료를 제출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연장에서의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공직 퇴임 후 축재한 재산이 43억원에 달해 전

관예우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하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 자신이 (김연장에서)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부탁한 바가 없다. 제가 김연장에 간 이유는 (공직 재직 당시) 해외투자를 유지하고 공공의교를 하던 것과 (김연장에서)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됐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청문위원들은 추 후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전날(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진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내놨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최강욱 째짤이, 남자들 농담" ... "핑계 진짜 구차하다"

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 중 한 남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최 의원을 감쌌다.

김 씨는 "최 의원이 '째짤이'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냐. '째짤이'는 구슬 혹은 동전을 손에 쥐고 흘쩍을 맞추는 게임이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 얘기 한 것"이라며 "일종의 해프닝 같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닌데. 이걸 여성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sinj**** 핑계도 어지간히 해야지. 진짜 구차하다.

km1**** 민주당 사람들만 하나 보네. 해석이 기가 막힌.

lhea**** 애스다.

Future Value, Ask KSA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지식서비스 기관

불확실성의 시대 KSA가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지식서비스기관으로서 지난 60년 표준·품질·인증·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네비게이터로서 귀족을 같이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AI(인공지능), 블록체인, BigData, ESG, 스마트공장, 탄소중립 등 산업현장의 체질개선과 디지털 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60년, KSA는 뉴노멀시대 지식가치 전달자로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Key Success Agency 한국표준협회

KSA 한국표준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DT센터 | TEL. 02-1670-6009 | www.ksa.or.kr

표준: 표준정책연구 | 표준개발 및 진흥 | 글로벌표준화 활동 | 표준 보급 및 보급

품질: 품질경영 연구 | 국가품질상·분양조 | 서비스품질지수 | 서비스대상

인증: KS·ISO·JIS인증 | ESG, 사회적책임 | 온실가스 에너지 감·인증 | AI+인증 | 로하스·헬빙·실내공기질

교육: 기업 교육 및 OJT | 디지털 전환 자격·인증·교육 | CEO 포럼 | 일자리·창업지도 | 경영진단